

#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513천km <sup>2</sup>	GDP	3,709억 달러 ('12)
인구	64.46 백만명 ('12)	1인당 GDP	5,753 달러 ('12)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aht(Bt)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30.64 ('12)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활황을 이룸.
- 입헌군주국으로 1946년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2011년 7월 총선에서 프어타이당(Phen Thai Party)의 총재이자 전 탁신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28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음.
-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의 중심국가로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칠레 등과의 FTA협정 추진으로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12년 홍수 피해 복구작업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6.4%의 경제성장률 시현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경제성장률은 7.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 산업설비 가동 중단, 전력공급 중단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0.1%로 둔화됨.
- 2012년에는 산업생산 회복과 피해복구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설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 이후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

- 2010년에는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재정적자가 GDP의 -0.8%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2011년 홍수 발생으로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산업단지 및 주거지 복구에 투입하고 지출 예산을 증가하여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11년 -1.6%, 2012년에는 -3.1%로 확대됨.

- 복구작업에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수출 산업 및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원유와 국제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0년, 2011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3.3%, 3.8%로 상승하였음.

- 2011년 하반기 홍수 발생으로 농업 및 제조업 생산감소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2.48	-2.33	7.81	0.08	6.40
재정수지/GDP	0.13	-3.18	-0.80	-1.57	-3.05
소비자물가상승률	5.5	-0.9	3.3	3.8	3.0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2012년 기준 GDP에서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3%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외부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확대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에는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또한, 1985년 엔고현상을 계기로 일본기업들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자동차, 전자 산업 등 주요산업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 철수 시 산업공백의 우려가 높음.

#### □ 숙련 노동자 부족

- 태국은 투자개발 및 혁신부문을 이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이 외국기업에 의해 지적되고 있으며, 숙련노동자 공급을 위해 태국정부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들간에 일관적인 정책이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고급인력 부족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학력 노동자의 인력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2년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태국은 전체 59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여 2011년의 27위에서 3위 하락하였음.

- 주변 동아시아국 비교: 대만 7위, 말레이시아 14위, 한국은 22위

## 나. 성장 잠재력

### □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풍부

- 태국은 ASEAN의 중심국가로서 튼튼한 내수시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비교적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태국은 10개 ASEAN 회원국 중 2011년 기준 인구 4위(6,446만명), GDP규모 2위(3,709억달러), 수출 3위(2,792억달러) 등 대부분 경제사회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 FTA 체결을 통한 외국인투자 및 교역확대

- 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페루, 중국(ASEAN-중국)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페루, 인도 등과의 FTA협상이 진행중임. FTA체결로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이 확대되어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한 수출국가 다변화 및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확대가 태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다. 정책성과

###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주효

- 태국은 농업기반의 전통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왔음.
- 유연한 노동시장과 친기업적인 노동법 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전기전자 산업 및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여 태국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 □ 정책 포플리즘과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선거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12년 민간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약 40% 인상하였으며 2013년 1월에도 26%의 추가 인상을 단행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012년까지 23%로 인하한데 이어 2013년까지 20%로 낮출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하반기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태국정부는 정책기조를 수정하여 피해가 집중된 중앙평원지역의 도로망 정비와 산업시설 복구에 예산 투입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복구작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됨.

### 3. 대외거래

#### □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

- 태국은 ASEAN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규모 3위인 수출 주도형국가이며, 2012년 기준으로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 2010년 세계 경기회복세로 대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소비 및 투자의 회복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1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주요국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시장 위축과 홍수피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장비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175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83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됨. 그러나, 2013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흑자 축소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2012년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

- 2009년 21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기업들의 무역관련 서비스수요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배당금 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2010년 경상수지 흑자가 131억 달러로 감소한데 이어, 2011년에도 2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2011년 대홍수의 영향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약 19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3년에는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로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2,210	21,890	13,098	2,796	-1,975
경 상 수 지 / G D P	0.8	8.3	4.1	0.8	-0.5
상 품 수 지	17,396	32,607	31,676	17,470	8,318
수 출	175,215	150,788	193,610	219,597	226,200
수 입	157,819	118,181	161,934	202,127	217,882
외 환 보 유 액	108,661	135,483	167,530	167,389	173,328
총 외 채 잔 액	76,102	75,346	91,100	94,200	99,200
총 외 채 잔 액 / GDP	27.9	28.6	28.6	27.3	26.8
D S R	6.7	1.7	2.1	1.9	1.8

자료: IMF, EIU.

## 4. 외채상환능력

### □ 외채 관련 지표 개선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는 1998년 93.8%에서 2012년 26.8%까지 감소하는 등 외채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수출 증가로 2008년 6.7%에서 2012년 1.8로 하락하였으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특성상 당분간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 수출호조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09년도 말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실현 등으로 전년대비 약 24.7% 상승하였으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1년에 1,67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1,73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월 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도 2008년 6.0개월 수준에서 2009년 9.6개월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수입증가로 하락세를 보여 2011년 7.4개월, 2012년 7.2개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집권

- 2011년 7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최대 야당이자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총 500개 의석 중 과반수가 넘는 265석을 차지하여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당총재인 잉락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28대 총리로 임명됨.
- 잉락친나왓은 정치경력이 전무하나 탁신 전총리의 여동생이라는 정치적 후광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당을 이끌고 압승한 것으로 분석됨.



- 총선을 통해 탁신 전총리의 영향력이 여전히 견재함이 드러났으며, 여당은 2011년 11월 탁신 전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탁신 전총리가 사면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 지속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승리로 임명된 잉락총리가 탁신 전총리의 사면 및 탁신 지지자들의 정부 요직임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국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잉락 총리는 쿠데타 후 범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정치사범들을 사면시키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화합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은 동 법안이 탁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 푸미폰 국왕의 노쇠화로 인해 정정 불안 가능성 잠재

-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adej) 국왕은 86살의 고령으로 2009년 이후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태국의 정정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푸미폰 국왕의 유일한 아들 마하 바지랄롱꼰 왕세자는 능력 부족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왕위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반정부세력에 의한 시위로 불안한 상황 지속

- 친정부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 반독재민주전선(UDD)은 2010년 3~5월 까지 방콕 중심가를 점거한 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강제 진압으로 유혈사태로 번져 이 기간동안 88명의 사망자와 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또한, 2012년 10월 잉락 친나와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퇴역 장군이 이끄는 시암피탁 그룹(반 탁신성향) 주도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1월에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138명이 체포되었음.

### 3. 국제 관계

####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창설과 함께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 AFTA) 창설 또한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음.
- 그러나, 태국의 정정불안에 따라 ASEAN 정상회의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타 ASEAN 국가들의 신뢰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EU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탁신정부 이후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 중 한축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일본은 태국과 2007년 경제동반자 관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약 1,589억 바트(전체 외국인투자의 5701%)를 투자하여 제1위의 투자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10년 이내에 태국에 수입되는 일본 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양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으로 갈등 잠재

- 캄보디아-태국간 오랜 분쟁지역이었던 국경지대의 프레아비헤아르(PreahVihear)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면서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으며, 2011년 2월에도 교전이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는 등 국경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으나, 2011년 7월 총선 이후 취임한 잉락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국경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맞이함.
  - 양국은 태국만 해역에서 유전과 가스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UN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국경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지정하여 평화조성에 힘쓰고 있음.
-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양국은 분쟁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으나 이후에도 국경문제의 재발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및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D.S.R. 및 GDP 대비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2년 3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2011년 잉락총리 집권 후에도 정치 사회적 불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태국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의 3등급으로 유지함.

- 태국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08년 12월 태국의 공항폐쇄와 반정부 시위를 반영하여 BBB+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으나, 2010년 12월 정치 및 경제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다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09년 4월 태국정부가 폭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국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태국 장기외화표시 채권등급을 BBB+ 에서 BBB로 하향조정하였으나 2013년 3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촉진으로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함. Moody's는 2003년 11월 이후 Baa1로 유지하고 있음.

####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전액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국교수립: 1958년 10월 1일 (북한과는1975년 5월 8일 수교)

####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8), 이중과세방지협정(1977), 투자보장협정(1989), 해상운송협정(2002), 문화교육협정(2004)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태국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양자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 다자관계를 통해서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12월 한-ASEAN FTA 최종합의, 2009년 6월 한-ASEAN FTA 투자협정 등을 통해 외교, 정치뿐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태국과의 교역규모는 2009년 중 경기침체로 인해 교역규모가 77억 달러로 다소 감소한 이후 경기회복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3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우리기업의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12월 기준 총 734건(신규법인 수 기준), 18억 3,576만 달러(투자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표 3>

한 · 태국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6,459,776	8,458,966	8,221,082	철강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4,168,786	5,413,360	5,353,245	임산부산물, 반도체, 기호식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태국 경제는 2011년의 대홍수 피해에 따른 인프라 복구 수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내수 확대 및 설비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2012년 6.4%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민간투자 위축이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이 2011년 하반기부터 확대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에는 1.6%, 2012년에는 3.1%로 상승하였음.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2011년 3.8%, 2012년 3.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2011년 총선에서 친탁신계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과반 승리로 취임한 잉락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사면 및 탁신 지지자들의 정부요직 임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정국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의 퇴임 이후 친-반 탁신세력간의 갈등이 시위로 표출되고 있어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외채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낮은 D.S.R. 및 단기외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 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태국은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Fitch는 경기회복에 따라 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함.

조사역 서은주 (☎02-3779-5705)

E-mail: seoeunchu@koreaexim.go.kr